

봄

아트레인보우, 여섯번째 전시
6월6일까지 화순 소소아트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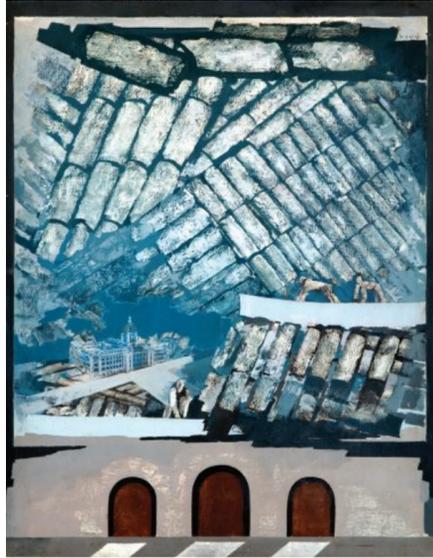


이승기작 '봄'

'봄날의 다양한 풍경을 만나다.'
서양화 그룹 아트레인보우(Art Rainbow) 여섯번째 전시가 오는 6월6일까지 화순 소소아트뮤지엄(도곡면 지강로 467-1)에서 열린다.
'봄 나들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회원들은 다채로운 봄의 모습을 화폭에 풀어냈다.
유채꽃이 흐드러진 마을, 벚꽃과 개울물이 어우러진 한적한 동네, 산수유가 온 동네를 뒤덮은 구림산동마을, 신록 속을 달리는 드라이브 풍경, 아침 햇살을 받은 숲속 풍경 등이다. 또 목련, 작약 등 봄을 알리는 화사한 꽃과 새콤한 레몬 등을 주제로 한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전시회에는김경실·문희진·박민희·서정희·성미경·오윤경·윤유진·이명희·이승기·이재남·정미향·한경돈 등 12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아트레인보우(Art Rainbow)'는 지난 2015년 창립전 '봄날이전'을 시작으로 '봄의 향연전', '소풍전', '크리스마스 캐롤전' 등 다양한 주제로 그룹전을 열어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6월 말 공개되는 '이건희 컬렉션' 중 김환기 '30-III-68#6' <왼쪽> 신소장품전 전시작 손장섭 '역사의 창-광화문'.



시립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6월 말 만난다

이중섭·김환기·오지호·이용노...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30점이 6월말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매년 새로 수집한 작품을 소개해온 미술관은 현재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전 1부 '신소장품 2020' (6월 20일까지)전에 이어 6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2부 '이건희 컬렉션 기증작품'전을 개최한다. 당초 내년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미술애호가들의 관심이 높아 올해 소장품전에서 선보이기로 하고 전시를 준비해왔다.
김환기·오지호 등 9명 작가 21점을 기증받은 전남도립미술관은 9월1일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건희 컬렉션 전시에서는 이중섭 화백의 '은지화' (銀地畵) 4점과 연인 아야모토 마사코에게 보낸 '엽서화' 4점을 만날 수 있다. 또 신안 출신 김환기 화백의 작품은 대작 '30-III-68#6' (121.3cm x 85.6cm)을 비롯해 '무제' 등 유화 4점과 드로잉 작품 1점 등 모두 5점이 전시된다. 그밖에 오지호 화백의 작품으로는 '추경', '정물', '실경', '계곡 추경' 등 풍경 4점과 정물 1점의 유화

29일~8월15일 소장품전시 공개
이중섭·이용노·김환기 그림 전시
6월20일까지 개최 '신소장품전'
양수아·임직순·강연균·김설아 등

등 모두 5점을 만날 수 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시위 군중을 표현한 '군상(群像)' 시리즈로 잘 알려진 고암 이용노 화백의 작품은 '문자추상' 경향의 대작 2점과 '군상' 연작 3점 등 모두 11점이 전시된다.
올해 미술관은 모두 131점의 소장품을 확보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작품 구입'을 통해 총 46점의 작품을 구입했으며 아트페어, 개인 기증 등의 과정을 통해 수집된 131점은 모두 지역 작가 작품들로 전통 남도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 지역 근현대 미술사를 일별할 수 있는 컬렉션이다.
현재 5·6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는 '2020 신소장품'전에서는 모두 71점이 전시됐다. 전시는 '남도미술의 원류', '민주·인권·평화', '자연탐구', '개인서사' 4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선보인다.
의제 허백련을 비롯해 남종화를 계승·발전시킨 허백련·정운면·조방원 등의 한국화와 호남 추상미술의 선구자 양수아를 포함해 임직순·황영성·김종일 작가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미술관 소장품 수집의 주 테마 중 하나인 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인권 분야에서는 강연균의 '하늘과 땅 사이' 시리즈, 손장섭의 '역사의 창-광화문'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는 '자연탐구' 섹션에서는 이선복의 '무등산 만월', 서미라의 '시작', 김자이의 '휴식' 등의 작품이 내걸렸으며 다양한 매체 실험으로 자아탐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개인 서사' 섹션에서는 윤남웅·강은·김설아 작가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동네방네 미술관-한 권 갤러리'
대담미술관, 28일 향교리투어 등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동네방네 미술관-한 권 갤러리'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전예약자 50명(예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시해설, 향교리 투어 등으로 구성된다.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기획전시 관람'에서는 작품 설명 및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며 '동네방네 미술관-한 권 갤러리 소개'에서는 미술관 근처 담양 향교리마을을 거닐며 대담미술관의 지역문화활성화 프로젝트 '동네방네 미술관'을 소개하고 '한 권 갤러리'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다.
'아트화분&꽃시음기 체험'에서는 다양한 재료로 화분을 만들어 흙을 채우고 꽃씨를 심는 활동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 힐링을 제공한다. 체험 후에는 참가자 각자가 자신의 화분에 담긴 이야기를 발표하며 자신감과 공감능력을 이끌어 내 보는 시간도 갖는다. 무료 참여. 문의 061-381-008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차이콥스키 발레 명작

광주시립발레단, 29일 여수 예울마루 대극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등 클래식 발레 3대 명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은 29일 오후 3·7시 여수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해설과 함께하는 '차이콥스키 발레 명작시리즈'를 선보인다.
1877년 모스크바에서 초연된 '백조의 호수'는 지그프리트 왕자가 우연히 악마 로트바르트의 저주에 걸려 낮에는 백조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오데트 공주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이다. 시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유리 그리고로비치 재안무 버전으로 원작과는 달리 악마 로트바르트를 하나의 등장인물이 아닌 인간의 내면성을 비추는 거울로 상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오데트 공주는 강은혜와
박경애가 연기하며 지그프리트 왕자 역은 이기행과 김주현이 맡았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프랑스의 작가 샤를 페로가 쓴 동화를 원작으로 마리우스 피터파가 안무를 맡았다. 진실한 사랑이 한 인간을 구원한다는 판타지물로 오로라 역에는 공유민, 강민지가 캐스팅됐고 데지레 왕자는 박범수와 박관우가 연기한다.
마지막 '호두까기 인형'은 언제나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여주인공 클라라와 호두까기 왕자가 선사하는 '동화같은 여행' 이야기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조희원·강은혜·이택영·우건희가 하이라이트로 구성해 선보인다.
예울마루와 인터파크 예매,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1544-766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앎문화원, 하성흠 '5월 작품' 문구 삭제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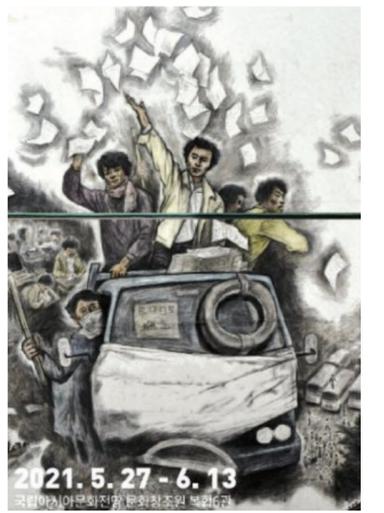
'윤상원' 전 앞두고 흠피 게재...시민연대 '검열·훼손' 비판

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기간에 5월 정신을 '검열·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 일환으로 아시아문화원 문화창조원에서 개최 예정인 '역사의 피로침, 윤상원, 하성흠의 수목으로 그린 열사의 일대기' 전시를 앞두고 아시아문화원 담당 직원이 하성흠 작가 작품의 특정 문구를 지운 채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당초 전시는 오는 28일부터 6월 13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아시아문화원 담당 직원이 하성흠 작가 작품에 표기된 특정 문구를 삭제한 뒤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작품은 5월 항쟁 기간 당시 트럭에 탄 시민들이 유인물을 뿌리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트럭 전면엔 '전두환을 쫓아'라는 글귀가 부착돼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착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옛 전남도청이 위치한 전당에서 벌어진 일이라곤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연대는 26일 '아시아문화원의 하성흠 작가 작품 검열 및 훼손에 대한 긴급 논평'을 발표하고

"작품 훼손은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반문화적인 행태이자 사전 검열 행위"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작가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5·18관계자, 지역예술인, 광주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원측은 담당 직원이 지난 24일 오후 심수로 특정 문구를 삭제해 홈페이지에 게재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후 광산구 이의제기로 25일 오전 시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산구와 윤상원기념사업회에 사과와 아울러 담당직원의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며 "하 작기도 사과를 수용하고 예정대로 전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오월정신 구현을 위해 노고중인 지역 민주사회에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오월정신 확산과 지역 상생에 소홀함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하성흠 작가 작품 원본(왼쪽)과 특정 문구가 삭제된 작품.



Advertisement for Beltone hearing aids. Features the slogan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Trust and Satisfaction for Customers). Lists various awards and certifications, including CES Innovation Awards and BIG Innovation Awards.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Seosik, Seoul, and Suncheon.